

불교뉴스사이트

새로운 대중 매체로 발돋움

“최신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붓다뉴스·조계종·성철넷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불교포커스·불교닷컴 등 잇따라 탄생 붓다뉴스, 영상·해외소식·뉴스레터 ‘눈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관호(28)씨는 불교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붓다뉴스를 매일 접속한다. 불교계 뉴스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어 한곳에서 모든 불교 뉴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백승호(34)씨는 경북 구미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큰스님 초청 법문 등 불교 정보를 얻기 힘들어 불교계 인터넷 매체를 자주 찾는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교계 대한 언론이 다수 창간되면서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큰스님 초청법회 등 다양한 신행 정보는 물론 일상에서 겪는 재미있는 신행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어 향후 대안적 불교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창간해 불교계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으로 성장한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2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취재한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고 큰스님 법문, 영상뉴스 등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여명의 해외통신원들이 세계 각국의 불

교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 뉴스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독자들에게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정보센터가 2월 15일, 불교의 내일을 여는 인터넷 대안 언론을 표방하며 창간한 불교포커스(www.bulgyofocus.net)는 권력화된 권력을 감시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제도·관행·의식의 벽을 허물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진보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이 기사 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불교계 대안 언론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후원인만도 100명이 넘고 등록 기자회원이 1748명,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회원이 2500여명에 가깝다.

1월 21일 창간한 불교닷컴(www.bulkyo21.com)은 논평이 있는 뉴스를 지향한다. 사실전달과 더불어 사실에 대한 해설과 분석,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간지 기자 출신들을 영입해 전문성을 키웠으며 오프라인 신문과 차별된 시각과 목소리 등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신문매체를 가지고 있는 불교신문, 법보신문, 만보신문, 주간불교, 밀교신문, 금강불교 등도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 신문의 기사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불교닷컴 공동대표 정전 스님은 “오프라인 신문은 소수자의 의견을 보도해주지 못하지만 불교계 온라인 매체들은 각종 각층의 의견들을 포용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은 부분의 이야기나 지방 오지의 이야기 등이 자발적 참여로 기사화 되는 것은 언론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6 클릭! 즐겨찾기

새싹 불자들은 좋겠네! 랄랄라~

좋은벗 풍경소리, 현대감각 살린 찬불동요 인기



좋은벗 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ni.or.kr)는 창작 찬불가를 전문적으로 듣고 즐길 수 있는 사이트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창작 찬불가를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는 단체로 현재까지 21집의 앨범을 내놓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풍경소리 소개, 노래, 소식지 등의 코너를 통해 창작 동요집, 법회 의식곡집, 연등축제 앨범 등 다양한 찬불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통 동요, 국악 동요, 신동요 등을 제작 홍보하는 찬불동요 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다.

부다피아, 이해기 갤러리 오픈

부처님 일생 29점 선배

부처님의 탄생, 천상천하유아독존, 금도낙발 등 부처님의 일생이 금화(金畵)로 나타났다. 불화가 이해기씨의 ‘금화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08)은 부다피아의 여덟 번째 초대갤러리도 총 29점의 작품을 담았다.

부처님 전생담에 해당하는 우르빈야 카사파의 귀에서부터 열반도에 이르기까지 금니선화로 표현했다.

이해기씨는 1959년에 태어나 1988년 동국대 미술과를 졸업했다. 현재 금니선묘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화풍 5종세트

화풍은 부드러운 향기를 가져다주는 불바람, 그것은 숲과의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순수한 향이 이룩고 봄의 꽃바람이 되어 퍼져갑니다. 사백여년에 걸쳐 전승된 장인정신과 최첨단의 조향 기술이 융합되어 탄생한 화풍은 카타리베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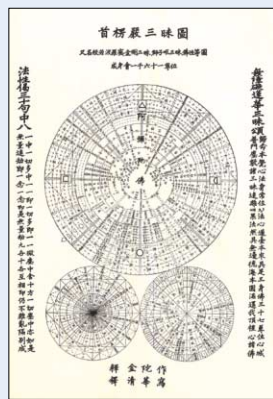
가격 : 35,000원

五知如來<阿彌陀佛>

三界二十八天이라든가 또는 불교 우주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물리화학적 표현을 쓴다면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 5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五知如來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총칭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며, 이를 형상화 시킨 것이 오지여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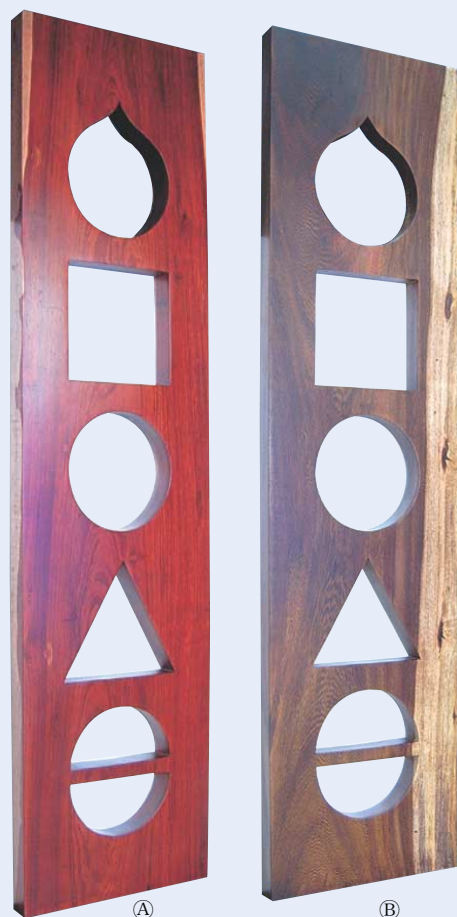
清華 큰스님 원통불법의 요체 중에서...

사찰, 각 가정에 모심으로써 우주의 에너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기원합니다.



- 네모는 대를 의미하고
- 원은 물을 의미하고
- △ 세모는 불을 의미하고
- ⊖ 반원은 풍을 의미하고
- ◊ 향공상은 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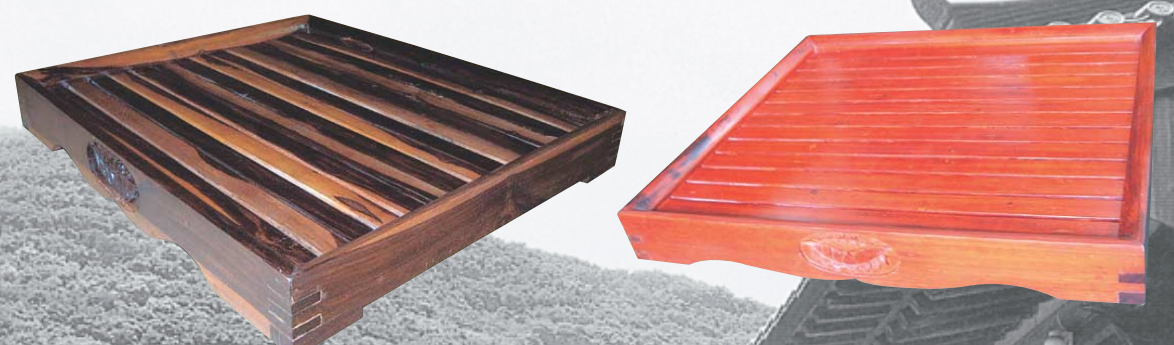
오지여래(아미타불)
• 규격 : 30cm × 120cm × 3.5cm • 무게 : 18kg
• 재질 : ㉠천연목재 현사홍목 ㉡흑단목
• 기획/제작 : 강순자(安祥華)보살님 禪作



₩ 178,000

선상(禪床) 목은 이호득 先生 禪作

한 번 준비로 평생의 반려가 되는 수행의 귀한 반석입니다.



흑단 선상 ₩210,000

천사홍목선상 ₩210,000

선상(禪床)에서 정진(精進)하시면 집중의식이 뚜렷하게 확장되어 화두가 성성해집니다

선상이 곧 수행 공간입니다.

- ▶ 앉아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개운합니다.
- ▶ 어느 공간이나 잘 어울리며 이동이 간편합니다.
- ▶ 선방·기도처·가정·사무실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제방선원 30여 곳에서 절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생의 修行 도구로써 가까이 할수록 三生이 닦아집니다.
-사자산 목덕사 연곡스님-

• 규 격 : 가로80cm × 세로70cm × 높이10cm × 무게10kg ~ 13kg

* 단체 주문 시 보시가격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주문전화 (061) 755-8555

우체국 : 501866-01-001403
능 협 : 639-12-316937(예금주:강순자)

주문전화 (061) 755-8555

우체국 : 501866-01-001403
능 협 : 639-12-316937(예금주:강순자)